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신보에 출연금 15억원 전달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사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전북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신보보조재단 (이사장 김용무)에 15억원을 특별출연했다. 이번 출연금을 통해 농협 전북본부는 전라북도도와 협약해 '코로나19 긴급 경영안정자금II 특별보증 대출'을 지난 3월 23일에 출시했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약 350억 원의 대출을 1%미만의 저금리로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본부는 코로나19 피해업체 전용 상담창구, 신속 여신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67건, 424억 원의 코로나19 관련 자금을 집행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장기요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조속히 정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꽃 핀 과수 저온피해

최소화 위해 사후관리를

농진청, 인공수분 횡수

늘리고 적과작업 늦춰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4일부터 6일 사이 일부 내륙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관측됨에 따라 현재 꽃이 핀 배, 복숭아, 사과 등의 저온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과수는 꽃이 핀 동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암술의 씨방이 쉽게 변하면서 죽게 된다. 씨방이 죽으면 수정 능력을 잃게 되어 과실을 맺지 못한다. 지난 주말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저온도가 개화기 과수 저온피해 한계 온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저온피해가 발생한 과수원에서는 안정적인 열매 달림을 위한 재배관리 기술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는 인공수분을 1회에 끝내기보다 꽃이 질 때까지 2~3회 정도 나눠 실시해 늦게 핀 꽃까지 최대한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 증식화(과실의 품질이 좋게 나오는 어미꽃)가 피해를 입은 사과는 축화(새끼꽃)에도 인공수분을 실시하여 착과량(열매가 달리는 양)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상품성이 낮은 열매를 따내는 적과 작업을 최대한 늦게 실시 가능한 많은 열매가 달리도록 한다.

저온피해가 심각한 과수원은 나무자랍새(수세)관리를 위해 상품성이 낮은 과일(비정형과)도 열매 달림(착과)을 유도한다. 열매 달림이 적으면 나무자랍새가 강해져 이듬해 생육과 꽃눈분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좋지 않은 열매도 키워야 한다.

웃거름과 엽면살포 등 거름 주는 양은 줄이고, 여름철에 나오는 새로운 열매줄기 유인작업과 가지치기를 통해 나무자랍새가 강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김윤상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추석명절 전통시장을 방문한 조성완 사장(사진 오른쪽).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 '앞장'

전기안전공사, 9억500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구매 지급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공사는 지난 3월 26일 노사 협의에 따라, 이달 임직원 급여액의 10%(인 9억 5천만 원 가량)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해 전 직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상품권 보급을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경기부양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공사는 국민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임원 급여도 1년간 매달 10%씩 반납하기로 했다. 공제된 재원은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에 기탁한다.

이와 함께, 전 직원에게 배분된 복지 포인트도 조기 사용을 독려 중에 있다. 4월 말까지 포인트를 모두 사용한 직원에게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추가

지급하는 등의 유인책도 마련했다. 직원 격려품도 농산물 위주 품목으로 지급해 지역농가 살리기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차원에서 지역 전통시장 상가 연합회와 손잡고 구입할 물품들을 일괄 발주, 직원들에게 개별 택배로 전달할 방침이다.

조성완 사장은 "공동체의 나눔과 연대야말로 코로나 위기를 막아낼 최고의 백신일 것"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진무 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통 분담을 위해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동조합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스마트공장 우수사례, 유튜브로 쉽게

중기중앙회, 동영상 제작... 주제별 6편 구성 선택 시청 가능

"하모니 감속기의 핵심기술을 국산화한 A업체는 상생형 사업을 통해 대량생산의 기술을 마련했다. 그 결과 생산성 54% 향상·불량률 70% 감소를 이루었다"

국산화한 핵심기술을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대량생산 플러그 마린한 업체의 이야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와 함께 진행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의 우수 구축사례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중기중앙회가 2018년부터 중기부, 삼성전자와 함께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삼성전자와 정부가 매년 100억원씩 5년 동안 총 1,000억원을 지원하며, 유형별 최대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소기업의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스마트공장에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쉬운 내용으로 동영상을 구성했으며, 주제별 6편으로 구성되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시청할 수 있다.

정육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스마트공장을

아무나 할 수 없는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스마트공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우수 사례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도움이 되고자 우수사례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며 "이번 우수사례 동영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튜브 동영상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지원사업→스마트공장→공지사항)와 유튜브 중기중앙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스마트공장지원실(02-2124-4371)로 연락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위축된 농식품 수출 해답 찾기 나서

aT, 18개 해외지사 등과 전략 모바일 화상회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수출물류와 운임상승으로 농식품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일간 18개 해외지사, 현지 바이어들과 함께 농식품 수출전략 모바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모바일 화상회의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아세안 등 총 9개국 18개 지사와 미국지역 신선·가공식품 바이어들이 참석해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별 수출영향 및 대처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최근 국가별로 입국제한, 이동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잇따르면서 수출 농식품의 운송과 물류, 유통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해외 바이어들은 "미국 내 주문증가로 한국식품 수입량을 확대하고 있으나, 해상운송료 25% 상

승과 운송 횡수 감소 등으로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밝혔다.

따라서 aT 해외지사들은 최근 전 세계적인 언택트(비대면)마케팅 추세에 맞추어 온라인 판촉사업을 확대하고 한국의 가정간편식(HMR) 제품에 대한 온라인 집중홍보, 대형마트 연결 배달앱을 통한 한국식품 신규 수요처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울러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품목들은 국가별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각국의 시장상황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aT 본사에서는 각국의 주요 바이어들과 한국 농식품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외지사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지난 2월 6일부터 농식품 수출대응TF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김윤상 기자

고산농협, 지도사업 종합평가서 우수 농협 선정·수상받아

전북농협 박성일 본부장은 6일 '2019 농·축협지도사업 종합평가서'에서 우수 사무소로 선정된 완주군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석)을 방문해 우수 사무소 표창패를 수여했다.

시상식 후, 박 본부장은 본격적인 영농철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선 영농현장에서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날 시상식은 당초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수상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지도사업 종합평가는 전국의 농·축협을 대상으로 영농·복지지원과 지도사업 인프라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마련 등을 수차례 계약화 평가해 농업인의 실익증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우수 농·축협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이다.

박성일 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고산농협 임직원이 합심해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영농지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영농 지도·지원 강화를 통한 농업인의 실익증진으로 코로나19를 같이 극복하자"고 격려했다. /김윤상 기자



전개공, 제5대 투자사업심의위원 위촉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공사의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제5대 외부위원 10명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외부위원들은 도시계획, 주택,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분야와 감정평가, 재무, 회계 등 분석분야에서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의 결정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공사의 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타당성, 원가분석, 시장전망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공정성과 수익성의 조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기하고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인 의견 반영을 위해 내부위원보다 두배가량 많은 수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도 공사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사업 등 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발굴 시 외부위원들의 많은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